

## 한국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 모색

전종한\*

### A Consideration on the Major Concepts of Rural Social Geography in Korea

Jong-Han Jeon\*

**요약** : 한국의 사회지리학은 영미 계통의 도시사회지리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촌락사회지리학에 대해서는 개념적, 이론적 논의가 매우 빈곤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 동안 촌락 경관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로 시작된 독일 사회지리학의 개념적 기초를 파악한 후, 1980년대 이후 크게 발달한 영어권 촌락사회지리학의 등장 배경과 연구 동향을 조망하였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촌락 경관이 촌락성의 표상이며 지방과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 그리고 물리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실체라는 점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한국 촌락의 경관적, 장소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상응하는 주요 개념들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자는 이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는데, 지리적 사회집단으로서의 종족집단, 사회집단의 지역화과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촌락권이 그것이다. 특히 전통 문화의 산실로서 촌락경관은 일상적 삶, 농업, 관광 사업의 중심에 있고 각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최근에는 학제적 수준에서 마을 연구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지성 세계의 동향에 촌락지리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리학적 개념들과 역사지리적 시각에서 복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지리적 사회집단, 사회적 공간, 촌락성, 종족집단, 지역화과정, 촌락권.

**Abstract** : Social geography in Korea has been studied centering around urban social geography which has been developed mainly in English world, and then there have been a few concepts and theories that were tested in the rural social geography of Korean rural landscape. This article tried to grasp the conceptual basis of German social geography, and had views on the rural social geography in the recent English world. As a result, the author concluded that the rural landscape would be a representation of rurality, a component of local and national identity, and thought to be not only a physical reality but social, mental, cultural reality. On the basis of this consideration, the author explored major concepts which would correspond with the universality and speciality of Korean rurality. They are as follows: 'lineage group' as a geographical socio-group, the 'regionalization' by social groups, and 'the territoriality of settlement' as a social space.

**Key Words** : geographical socio-group, social space, rurality, lineage group, regionalization, the territoriality of settlement.

\* 충남대학교 마을공동체연구원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ship, Research Center for Settlement Commun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1. 머리말

영미권의 사회지리학이 도시 현상을 주된 탐구 대상으로 하면서 도시지리학의 일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지리학은 20세기 초반 문화지리학의 형태적 연구와 인문지리학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 정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Chivallon, 2003). 특히 독일 지리학계에서 사회지리학은 문화지리학 및 경제지리학과 수 차례의 논쟁을 반복하면서 사회지리적 집단 개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설정하며 성립한 분야이다.

20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독일의 사회지리학은 Hans Bobek(1903-1990)의 선구적 연구에 토대를 두고 Wolfgang Hartke(1908-1997)의 뮌헨 학파가 주축이 되어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 이론적 초석에 있어서는 대략 세 가지 개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Vidal de la Blache의 '생활양식'(genre de vie), 그 주체가 되는 지리적 사회집단으로서 Bobek의 '생활형태집단'(Lebensform Gruppe), 그리고 기능주의 관점에서 사회집단과 경관적 표현상의 습합관계에 접근하는 개념인 '존재기본기능'(Grunddaseinsfunktionen) 혹은 '기초생존기능'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지리학은 재래의 문화경관 연구가 형태적 분석이나 발생론적 접근에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관 형성의 주체로서 사회집단에 주목하고 경관 형태에 작용하는 인간적 기능의 분석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적 기능으로서 생물사회적 기능, 경제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장소사회적 기능, 이동사회적 기능, 문화 기능 등이 언급되었는데(Maier *et al.*(박영한·안영진 옮김), 1998; Werlen(안영진 옮김), 2003), 이 중에서 Bobek의 사회지리학은 사회를 생활형태집단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 그리고 생활형태집단과 문화경관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작업을 제창한 것이었다(堤研二, 1992).

문화경관의 이해와 관련된 이 같은 문제의식을 실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자연스럽게 촌락 지역이었고, 최근 들어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 현상에 대해서도 '도시의 형성'이 아닌 '도시화의 진전과 촌락 지

역의 변모'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堤研二, 1992). 또한 사회집단에 관해서도 고전적인 생활형태 집단 개념 이외에 행동집단, 행위공간집단 등 현대 사회의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사회지리적 집단에 관해 검토하면서 개념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사회지리학은 도시사회지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가운데 도시적 현상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례 연구들을 축적해온 반면(원학회, 1978; 이은숙, 1982; 예경희, 1984; 길용현·김영성, 1984; 최은식·배미애, 1987; 허우궁, 1991; 전경숙, 1992; 김재한, 2002), 촌락 지역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관심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촌락 지역은 전통 문화경관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이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이 공존하고 집단적 결속력이 여전히 강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경관과 장소들이 생산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촌락은 근대화시기를 지나면서 영역성(territoriality)의 정치와 집단간 권력구조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를 확인하기에 유용한 공간이다.

그러나 경제지리학 및 농촌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촌락 연구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김기혁, 2002), 촌락 경관에 대한 사회지리적 접근의 경우에는 심지어 개념적 빈곤(conceptual famine)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기까지 하였다(이문중, 1996; 최기엽, 1996). 이 때의 개념적 빈곤이란 공간분석적 차원 또는 경제지리적 관점에서의 이론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촌락 지역의 장소적 성격과 촌락 경관의 해석에 관련한 개념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다(최기엽, 1996, 25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촌락의 장소적, 경관적 특성에 상응하는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을 구상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 점에서, 1980년대 이후 급성장을 보여 온 영미권의 촌락사회지리학 연구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영어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촌락사회지리학의 등장 배경 및 최근 연구 동향을 우선 살펴보고 보편적 수준에서 이 분야의 주된 문제의식과 관심사의 변화과정을 포착하

기로 한다. 다음으로, 한국 촌락사회지리학의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연구 주제나 성과에 있어서 한국적 특수성과 연구 주안점은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한다. 끝으로, 앞에서 조망한 한국 촌락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구상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국내의 촌락사회지리학의 태동과 연구 동향

### 1) 영어권의 촌락사회지리학과 사회집단 연구

1980년대 후반 이후 영미의 촌락지리학 분야는 사회지리학적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지리적 현상의 형성 인자로서 사회집단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결과가 촌락사회지리학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촌락사회지리학이 20세기 전반에 이미 확립된 것에 비하면, 영어권에서 촌락사회지리학이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1980~1990년대로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였다. 물론 촌락사회지리학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가옥이나 촌락에 대한 형태학적 설명을 추구하거나 촌락의 입지와 경지이용의 패턴에 대해 보편적 법칙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Houston, 1953; Chisolm, 1962). 즉, 지리적 사회집단에 관심을 표방하면서도 결국 형태적 접근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분포 및 형태의 연구와 공간적 분류 작업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 같은 전통적 촌락 연구는 1950~60년대를 지배한 하나의 패러다임이었다. 이 경향은 계량적 방법론의 활용에 힘입어 극상에 이르렀고, 1960~70년대에 와서는 촌락지리학의 연구 주제가 인구학적 변화, 촌락 사회의 공간적 경계, 가족과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 등으로 확장되었다(Phillips, 1998). 그러나 그것은 주제의 수평적 확장이었을 뿐 1950~60년대의 촌락 연구를 지배하였던 형태적 연구 패러다임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던 것이라 사료된다.

영미의 촌락지리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였다. 촌락 연구에서 이른바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향하는 '문화연구'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힘입어 촌락 현상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왔으며, 나아가 비물질적·정치적 측면을 외면해 왔던 기존의 제한적인 사회학적 상상력(restrictive social imaginations)으로부터도 벗어나 재구성되고 있다(Philo, 1991, 4). 이 과정에서 촌락사회지리학은 그 연구 내용이 질적, 수직적으로 심화될 수 있었다. 전자의 관점은 궁극적으로 촌락 계획과 정책 결정에 관심을 두지만(Urry, 1984; Newby, 1986), 그들 중에는 촌락을 독립체로서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존재로 바라보고, 지역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요소들을 쟁점화하여 다루면서 촌락에 접근한다는 것이 특징이다(Cloke and Little, 1990).

여기서 다루는 사회적 요소들이란 재화와 용역의 배분 문제, 사회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문제, 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계층화, 인구 이동과 변화 등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Marsden *et al.*(1987)과 Halfacree(1993)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촌락을 개체가 아닌 지역적 존재로 인식하며, 지역을 다시 사회 집단 혹은 사회 계층을 매개로 해체하여 분석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을 하나의 안정적 통일체로 전제하고 촌락을 독립된 개체로서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회 집단들로 구성되고 그들 간 사회적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실체로서 촌락 지역을 인식했고 지역적 존재로서의 촌락에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향한 문화 연구에서는 물질의 이면에 감추어진 비가시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Pratt(1996)은 전통적인 촌락지리학이 경관의 재현 및 해석과 같은 문화지리학적 관심사, 즉 소위 '기호론적'(semiotic) 장소 담론들에 소홀하였다고 지적한다. Unwin(1992; 2000)은 경관이 갖는 미학적 가치, 경관의 정체성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경관에 내포된 문화적 차원의 중요성을 선포하기도 하였다(Palang *et al.*, 2005, 3-5에서 재인용). Jo Little(1999)은 최근

20년간 영미의 지리학계에서 촌락 연구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경험하며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촌락성(rurality)의 문제를 문화적 구성의 관점에서 재현해보자고 제안하였다. Claval(2005)은 촌락 경관을 사회집단이 갖는 정치적, 문화적 단위성의 표현물, 사회적 차별성의 표상, 환경적 특수성의 표현으로서 읽힐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유사한 시각에서, 촌락지리학에서 문화적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논문들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Cloke and Milbourne, 1992; Jones, 1995; Little and Austin, 1996; Seymour, 1996; Little, 1999; Demeritt, 2002; Little and Leyshon, 2003; O'Rourke, 2005).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주제와 개념을 요약하면 일상생활을 유지시키는 역할로서의 담론, 담론의 순환 방식 및 작용 체계, 물질 경관의 상징성, 사회적 재현으로서의 경관, 사회적 변방에 입지한 소외 집단의 존재, 자연의 사회적 구성 등이다(Halfacree, 1993; Philo, 1993; Jones, 1995). 특히 Philo(1993)와 Murdoch and Pratt(1993)은 Michael Foucault의 권력과 담론 개념을 도입, 지역사회의 내적 차별성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Murdoch and Pratt은 권력을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차별화의 '원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와 실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효과'(effect)로 인식하였다. Philo는 권력의 문제를 '역사적, 지리적으로 특수화된 지역적 맥락에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993, 430).

일반적으로 영미의 촌락사회지리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공간은 대체로 현대 자본주의 하의 그것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의식과 개념들은 영어권이라는 특정 시·공간을 초월해서 적용 가능한 것이다. 가령,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부터는 사회 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게 된 인식론적 배경과 문제의식을,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연구 관점으로부터는 물질 이면의 상징성, 사회적 재현, 일상생활, 권력-공간 관계와 같은 개념들이 촌락사회지리학적 연구에 적용되는 방식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 2) 국내 문화지리학·촌락지리학 분야의 사회지리적 접근

1980년대 이래 국내의 촌락지리학과 문화지리학 분야에서는 촌락 관련 연구에 있어서 대략 두 개의 흐름이 형성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경지 개간 과정, 관개 기술 및 수리 체계의 변화, 생태적 조건과 촌락 분포의 관계 등 촌락의 생산적 기반 및 촌락 입지의 물질적·경제적 기초에 대한 연구들이고(오홍석, 1969; 류제현, 1979; 이준선, 1982; 남궁봉, 1983; 1990; 1993; 김일기, 1988; 박종서, 1988; 정치영·범선규·최영준, 1991), 다른 하나는 촌락경관의 형성 주체와 관련된 내연적 측면으로서 촌락을 사회적 과정과 관련시켜 파악하려했던 시도들이다. 본 고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주목하는데, 이들 연구는 소위 동족촌락의 형성 주체로서의 종족집단과 그들의 이주과정, 성씨집단들 간의 사회적 관계와 그것의 공간적 표현상, 촌락경관의 상징적 의미와 장소화 등에 관심을 두었다(양보경, 1980; 최기엽, 1982; 1983; 1986; 1993; 장보웅, 1983; 김덕현, 1983; 이문중, 1984; 1988; 홍현옥·최기엽, 1985; 옥한석, 1986; 정혜정·최기엽, 1990; 최영준·손종균, 1990; 이준선, 1993; 정부매·최기엽, 1994; 이간용, 1994; 전종한, 1995; 2002a).

시기로 볼 때 198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촌락의 입지나 촌락 경관의 형태적 측면을 연구한 빈도가 많았지만, 1980년대 이후 사회지리학적 관점에서 촌락 형성과 경관 형태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란 다른 아닌 문화경관으로서의 종족 촌락과 그 형성 주체인 종족집단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종족촌락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경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나는 촌락 내의 문화 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성 주체의 정신적 측면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었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종족집단의 이주 배경이나 경관 배치의 분석에 치중한 입장이다. 이 양자 모두 대체로 하나 내지 두 개의 소수 종족집단이나 촌락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미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관심사인 이른바 '지역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종족 집단들 간 사회적 관계와 지역화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아무튼 1980년대는 종족 촌락 및 관련 경관에 접근함에 있어서 사회집단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촌락의 지리적 요소들과 사회적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에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이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일련의 촌락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특성이 뚜렷한 단일 촌락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논의는 촌락 내 특정 장소의 이해 수준은 높였지만, 촌락이 국지적, 개체적 존재가 아닌 지역사회 내 존재로서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지, 종족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는 촌락의 형성 및 분포 패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비로소 개별 촌락 단위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더 나아가 지역적 스케일에서 촌락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들이 박사학위논문 등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다(최기엽, 1986; 이문중, 1988; 전종한, 2002a). 특히할만한 사실은 이러한 연구에서는 공간적 스케일의 확대와 더불어 종족집단 및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지역 및 촌락의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최기엽(1986)은 한국의 촌락이 갖는 역사적, 사회적 고유성을 거론하면서 촌락의 형태적 고찰이나 기능적 접근보다는 사회·경제사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촌락을 단순히 가옥의 집합체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사회집단의 조직과 생활이라는 사회적 과정 혹은 사회적 실체로서 이해하려 했다. 온전하게 촌락사회지리학적 관점에 입각한 이같은 견해는 자연스럽게 연구의 공간 스케일을 지역적 규모로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소위 경관형성의 사회적 과정이란 개별 촌락이 아닌 지역적 스케일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촌락의 사회적 과정을 개별 촌락의 수준을 넘어 보다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지리학적 방법과 역사지리학적 방

법의 종합에 의한 촌락 지역 특성의 해석을 추구한 것이었다. 촌락을 장소적, 개별적 존재가 아닌 지역적,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촌락 연구의 관점 및 틀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문중(1988) 역시 최기엽의 연구 지역과 동일한 태안반도의 촌락에 대해 지역적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종족집단 및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촌락의 형성과 분포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인자로 다루었다. 이상의 두 연구를 비교하자면, 모두 사회·경제사에 관심을 두었지만 최기엽이 사회사 내지 사회지리학적 관점을 중시하였던 것에 비해 이문중은 경제사 및 경지 개간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자의 연구가 공히 종족집단을 매개로 하여 촌락의 사회적 측면과 지역적 이해에 접근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외의 촌락사회지리학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간과 경관의 설명과 이해를 추구함에 있어 지리적 사회 집단 혹은 종족집단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흐름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인식은 지역 연구와 촌락지리학을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의 수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리학에서 사회 집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공간의 설명과 장소의 이해를 추구함에 있어서 사회적 상상력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리적 형태나 위상학적 문제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해하려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 주체의 문제로까지 심화시키고자 하는 관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어권의 진보에 비하면 국내 촌락사회지리학은 이론적, 개념적 논의가 여전히 빈약하다. 사료 이용에 있어서도, 촌락 형성의 사회적 측면, 즉 종족집단의 분포와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설명할 경우, 대체로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비롯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관한 사료의 내용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고 행정이나 개인 문집을 비롯한 각종 사찬 사료들에 담긴 정보들을 활발히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 종족집단의 이주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고찰한 사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보다 넓은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종족집단들이 어떻게 지역

화되어 갔는가 하는 점이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틀을 통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종족집단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어 갔는가, 그 과정에서 물질 경관들은 어떤 상징성을 의도로 창출되었는가, 그리고 거주지 이동에 있어서 지역 담론의 순환 체계와 종족집단 간 권력 관계는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주제들은 촌락 지역에서 전개된 ‘사회-공간’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한국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을 지리적 사회집단, 지역화과정, 사회적 공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색, 전망하기로 한다.

### 3. 주요 개념의 모색과 전망

#### 1) 지리적 사회집단으로서의 ‘종족집단’ (lineage group)

종족이란 부계 출계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구실원의 계보만이 아니라 그 시조가 분명한 혈연집단을 말하는 것이다(이광규, 1992, 75). 특히 宗孫, 宗家, 宗

親, 宗契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宗’이라는 개념은 장자 우대적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장자우대 관행이 매우 강한 한국의 종족집단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에 비해 ‘宗族’이라는 용어가 가장 어울린다. 가령, 남중국의 경우 종족집단 내부에서 남자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일본의 이에[家]에 있어서도 부계혈연 원리는 관철되어 있지 않고 부계혈연에 기초한 外婚制 규칙도 없다.<sup>1)</sup>

특히 현존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족보 서문에서도 자기 종족집단을 일컬어 스스로 ‘宗族’이라 표현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관찬 사료에서도 한국의 종족집단을 지칭할 때 거의 ‘종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족이라는 개념은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同族’<sup>2)</sup>개념에 밀려 근대 이후 잠시 잊혀졌을 뿐, 한국의 성씨집단을 지칭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나 명목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족집단의 촌락을 지칭함에 있어서도 동족 부락, 동성 촌락, 집성 촌락, 씨족 촌락 등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거나 적합한 것이 아니며 ‘종족 촌락’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촌락 지역에는 종족집단과 관련된 경관과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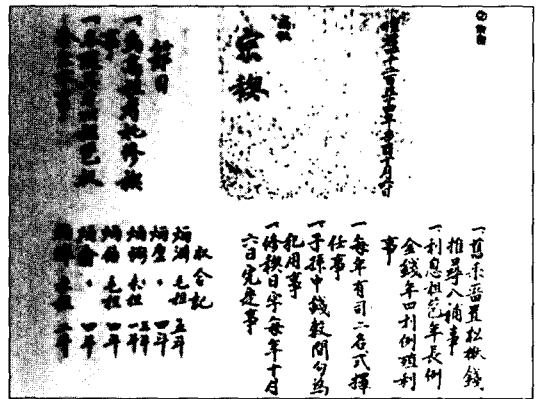


그림 1. 지리적 사회집단으로서 종족집단의 표상들 : 선조 묘역(왼쪽)과 종계문서

주: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종족집단은 지리적 사회집단으로서 다양한 경관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중심을 이루었다. 선조 묘역은 종족집단의 지리적 근거지, 부계 장자 중심의 계보 기원, 경제적 규모,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경관이며(사진 위: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도문리 덕수이씨 선조 묘역), 종계와 족보를 비롯한 중중 문서는 종족집단 내의 계파별 정통성과 사회적 구별짓기의 표식들이 된다(사진 아래: 충청남도 금산군 商山金氏 종계 문서).

소, 그리고 영역이 널리 분포한다. 이러한 지리적 요소들은 종족집단이 사회 구성에서 중요한 단위로 기능하였던 시대의 시·공간적 신물이라는 점에서, 촌락사회지리학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며 종족집단을 한국의 고유한 지리적 사회집단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宗法秩序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14세기 이래, 한국에서 종족집단은 일차적으로 사회 구성의 한 단위이기도 하였지만 분명 지리적 현상의 단위로도 존재하였다(그림 1).

종족집단은 국토 공간상에 다양한 경관을 각인하고 상징적 장소를 생산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상징적, 배타적 영역들을 끊임없이 창출해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달리 한국의 종족집단은 본관을 자기 혈통의 공간적 기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촌락의 형성과 거주지 이동, 지역화과정에서 공간적 행위의 주체이자 단위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국지적 스케일로부터 지역적, 국가적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촌락 공간상에 전개된 다양한 지리적 현상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족집단은 한국에서 14세기 이후의 시·공간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으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들 간의 계보학적 사회관계망 및 그것의 공간적 투영에 관한 탐색은 당시의 시·공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종족집단들 간의 계보학적 관계는, 사회적 국면에서는 각종 緣的 관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차원의 결집으로 드러났으며, 이것이 공간적 국면에서는 촌락권의 형성, 상징경관의 창출, 지역사회의 중심-주변 구조화, 영역성의 재생산 등과 같은 현상으로 표출되어 왔다.

다만, 종족집단 및 그 촌락경관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촌락의 형성 주체가 어떤 신분이었는지에 따라 연구 주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사족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사족집단의 촌락[班村]일수록 촌락 내부의 공간 요소들은 권력의 지형 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경관과 장소들은 고도의 상징성을 내포하며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문제를 통해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전종한, 2004). 이에 비해 평민촌락[民村]의 경우에는 생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촌락 내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생산 공간이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며 각종 경관과 장소에는 무속 신앙이나 생계와 관련되는 관념이 주로 반영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종족촌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족촌락인지 평민촌락인지 혹은 그 밖의 어떤 유형의 촌락인지를 구분한 후 각각에 조응하는 연구 주제와 자료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사회집단의 '지역화과정' (regionalization)

지리사상가 Arild Holt-Jensen에 의하면, 지역화과정이란 지표 공간이 어떤 지리적 변수나 기능<sup>3)</sup>에 의해 다양한 크기의 '면적들로 나누어지는'(to divide into areas) 과정을 의미한다(Holt-Jensen, 1980, 33). 그의 말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한 가지는, 어떤 지리학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표 공간을 지역으로 구분하는 행위' 그 자체를 뜻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지역'이란 그 지리학자의 연구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 가지는, 지표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공간적 행위에 의해 '지표 공간이 지역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첫 번째의 의미가 '지표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규정된 것이라면, 두 번째의 그것은 '지표 공간을 생활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주 주체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근대지리학 이후 전자의 의미가 지리 사상의 주류를 이루면서 인문지리학은 궁극적으로 지역 구분에 관심 갖는 분야로서 '분포의 과학'(science of distribution), '기술의 과학'(descriptive science) 같은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인문지리학의 흐름 중에는 후자에 큰 의미를 두는 조류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전종한, 2002c, 217-218). 이러한 조류는 소위 신문화지리학자나 신지역지리학자, 사회역사지리학자를 표방하는 일단의 학자군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데, 촌락사회지리학 또한 그러한 흐름에서 중요한 갈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화과정의 구명에 있어서 그 지역 속에 존재하는

거주 주체를 '장소' 요인과 함께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사고한 것은 프랑스 사회학자 Le Play<sup>5)</sup>에게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는 그의 제자인 영국의 도시계획가 P. Geddes에게 영향을 주었고, 다시 Geddes의 조교였던 지리학자 A.J. Herbertson으로 이어졌다(Holt-Jensen, 1980, 33-34).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사회학과 인문지리학에서 공히 공간과 사회를 상관적으로 인식하여 온 전통이 현재까지 계승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사회 이론에서는 구조화이론으로, 역사지리학에서는 사회역사지리학의 태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인문지리학과 사회학 사이에는 그 어떤 논리적, 방법론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A. Giddens(1984, 368)의 주장도 동일한 지성 지형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일견 지역화과정에 관한 구상이 인문지리학보다는 현대 사회 이론, 특히 Giddens의 구조화이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Giddens 자신도 언급했듯이 구조화이론은 사실상 Hagerstrand의 시간-지리학에서 영향 받은 바 크기 때문에<sup>6)</sup> 인문지리학과와의 대화의 결과로서 탄생한 것으로 볼이 보다 적절하다.

구조화이론에서는 사회 체계의 구조화 과정에서 지역화과정이 갖는 함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역화과정이란 사회생활의 공간적 무대인 'locale'이 어떤 내적 영역(성)을 가지면서 공간적으로 차별화되는 과정이라 정의되고 있다(Giddens, 1985, 272).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지역화과정은 'locale → regionalization → zonation'의 흐름상에서 전개되는 일종의 지역적 차별화과정(regional differentiation)인 것이다. 그가 지역화과정의 사례로 든 것은 영국의 남부와 북부 간의 지역적 차별화였다(Giddens, 1985, 265-295). 그는 "영국 남부와 북부 간의 지역적 차이는 물리적 형상에 의거해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계 하에서 시·공간상에 누적된 독특한 사회적 특성들(social traits)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독특한 사회적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소(place), 상징 경관(symbolic landscape), 영역성(territoriality) 같은 지리적 개념들이 본질적이다. 그가 언급한 'locale', 'regionalization', 'zonation'과 같은

용어로는 사회 집단들의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지리학계의 경우 지역화과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사적,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sup>6)</sup> 종종 지역화, 장소화 등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로서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은, 지역화과정이란 지역적 스케일에서 구성되어온 지역사회와 관련된다는 명제일 것이다. 촌락사회지리학에서 지역화과정에 관심을 갖는 인식론적 배경 또한 특정 시·공간상에서 전개된 촌락들의 집합체 혹은 지역사회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함에 있다(그림 2). 지역화과정의 결과가 지역사회이고, 지역사회는 사회집단 간 상호작용의 맥락이자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역화과정을 정의할 때에는 그 지역을 사회생활의 무대로 삼아 살아온 거주 주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거주 주체란 개인에서부터 전체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전통적 사회 집단의 중요한 단위로서 전술한 종족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종족집단의 거주지 입지, 거주지 이동 전략, 거주지 확대과정은 물론이고, ② 다양한 상징 경관과 장소의 창출 맥락, 종족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와 권력망, 그리고 ③ 이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영역의 형성 과정에 대한 포착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사회·공간적으로 연결된 일단의 종족집단들이 하나의 지역사회를 구성해온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결국 지역화과정이란 '개별 종족집단→종족집단 간', '거주지 점유→영역(성) 형성', '물질적 측면→상징성', '근린 관계→권력 관계', '공간→장소 또는 상징 경관'의 방향성을 갖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종족집단의 지역화과정을 '생태적 정착 단계(habitat phase)→경관 생산 단계(landscape phase)→영역성 재생산 단계(territoriality phase)'라는 이론적 틀로써 해석하려 한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전종한, 2002a). 그러나, 이러한 이론화는 각 지역사회의 지배집단이었던 사족집단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른 유형의 사회집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성을 가진 사족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화과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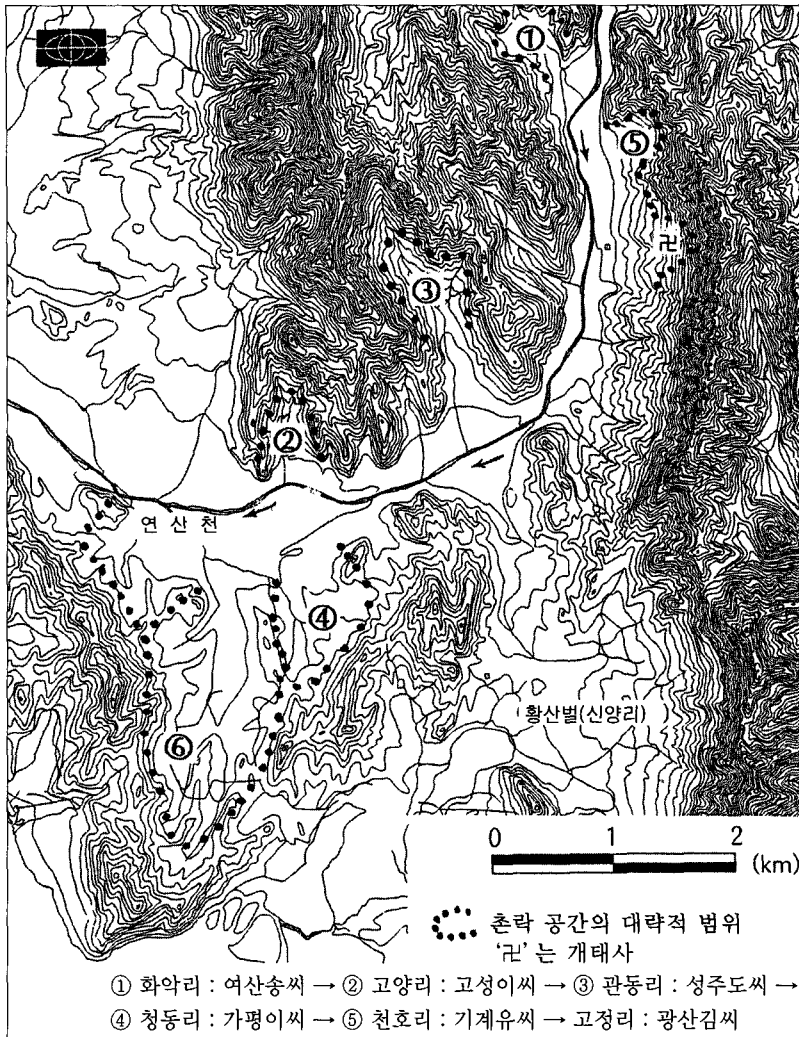


그림 2. 종족집단의 지역화과정 : 생태적 정착 단계(충청도 연산지방의 사례)

주: 15세기 초 충청도 연산지방에는 여산송씨를 비롯하여 고성이씨, 성주도씨, 가평이씨, 기계유씨 등이 정주 공간을 확보하며 정착해나갔다. 성씨는 서로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여산송씨와의 통혼을 계기로 입향하였고, 이 점에서 이들 종족촌락은 지역화과정의 첫 단계(생태적 정착 단계)부터 지역적 규모에서 전개된 '사회-공간' 관계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전종한, 2002b).

분파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지역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간 경계지대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는 지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지역화과정의 제 단계별 시간적 길어도 연구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며 지역화를 주도하는 수위 종족집단과 경관 및 장소 생산의 맥락에 대한 지역간 비교 연구도 요구된다.

### 3)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촌락권' (the territoriality of settlement)

사회지리학과 촌락지리학을 접목시키는 작업이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경관이나 촌락 형성의 주체로서 지리적 사회집단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촌락 단위가 아닌 촌락

들의 일정한 집합체, 즉 촌락권을 인식하는 일이다. 촌락권이란 대립과 협력 관계를 반복하는 일정 수의 촌락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관심은 촌락사회지리학의 핵심적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촌락권은 촌락 간의 제 관계를 준거로 설정될 수 있다. 앞의 그림 2에서 보았듯이, 형성 시점부터 촌락은 결코 개별적으로 존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련의 촌락들 사이에 존속하는 본래적 기능을 촌락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기본적 관계와 파생적 관계로 나눌 수 있다(이문중, 1998, 11). 기본적 관계는 경쟁 관계와 공존 관계로 이루어지며, 파생적 관계는 강약 관계와 권력 관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촌락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촌락 입지의 생태적 조건은 물론이고 사회, 정치(권력), 경제(생계) 등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인접 촌락과의 제 관계들을 검토해야만 한다.

한국의 촌락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성씨의 종족 촌

락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간에는 수많은 경제적, 정치·사회적 관계들이 작용하여 단일한 촌락권으로 묶어주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촌락 관계를 공간상에 투영해 보면 일정 범위의 권역 혹은 영역이 인식된다(그림 3, 그림 4). 이 경우 촌락권은 물리적 권역이라기 보다는 촌락 형성 주체가 만들어내는, 즉 지리적 사회 집단에 의한 공간적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종족촌락과 같이 특정 사회집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마을 내부의 동질성이 큰 마을일수록 촌락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촌락 내부의 측면 못지않게 촌락간 관계의 차원, 즉 촌락권이라는 문제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촌락권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촌락 형성의 주체가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체층에 속하는지, 경제적 지위는 어떠한지 하는 점이 해당 촌락권의 정체성 및 인접 촌락권과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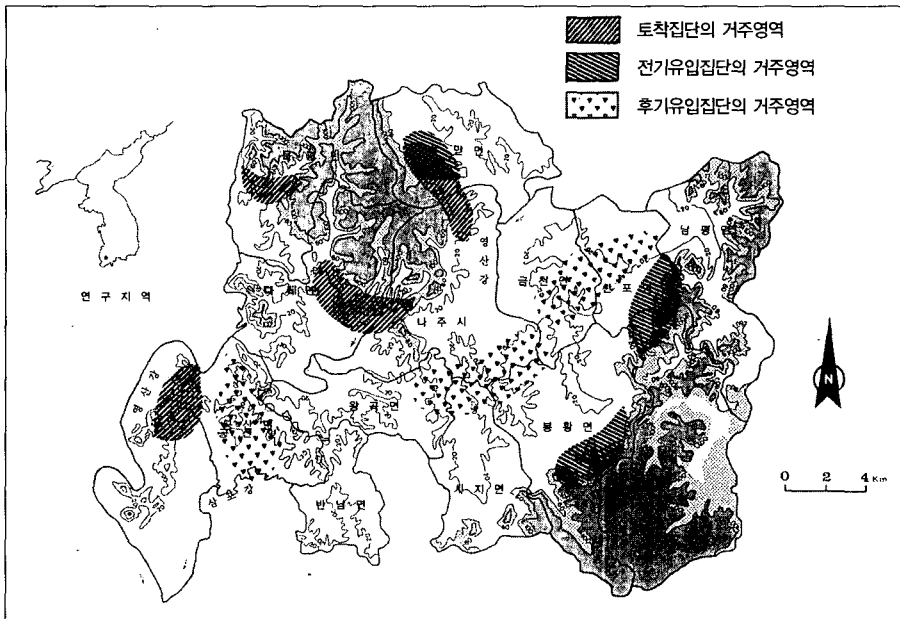


그림 3. 거주영역으로 본 종족집단별 사회적 공간 : 나주군의 사례

주: 지리적 사회 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위의 지도에서는 촌락 형성의 시점과 주체들을 준거로 삼아 사회적 공간을 확인해 본 것이다. 그 결과 토착 집단이 주체가 되어 형성한 촌락의 분포 영역과 전기 유입 집단의 거주 공간, 그리고 후기 유입 집단의 그것이 지표상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토착 집단이란 나주를 본관으로 하면서 고려시기 이전부터 이 지방에 거주하던 종족집단을, 전기 유입 집단은 여말선초를 중심으로 토착 집단과의 통혼이나 정치적 관계를 통해 이 지방에 유입한 종족집단을, 그리고 후기 유입 집단이란 양란 이후의 18, 19세기를 중심으로 전술한 종족들과는 어떤 관계가 없이 거주 공간을 확보한 종족집단을 말한다(전종한,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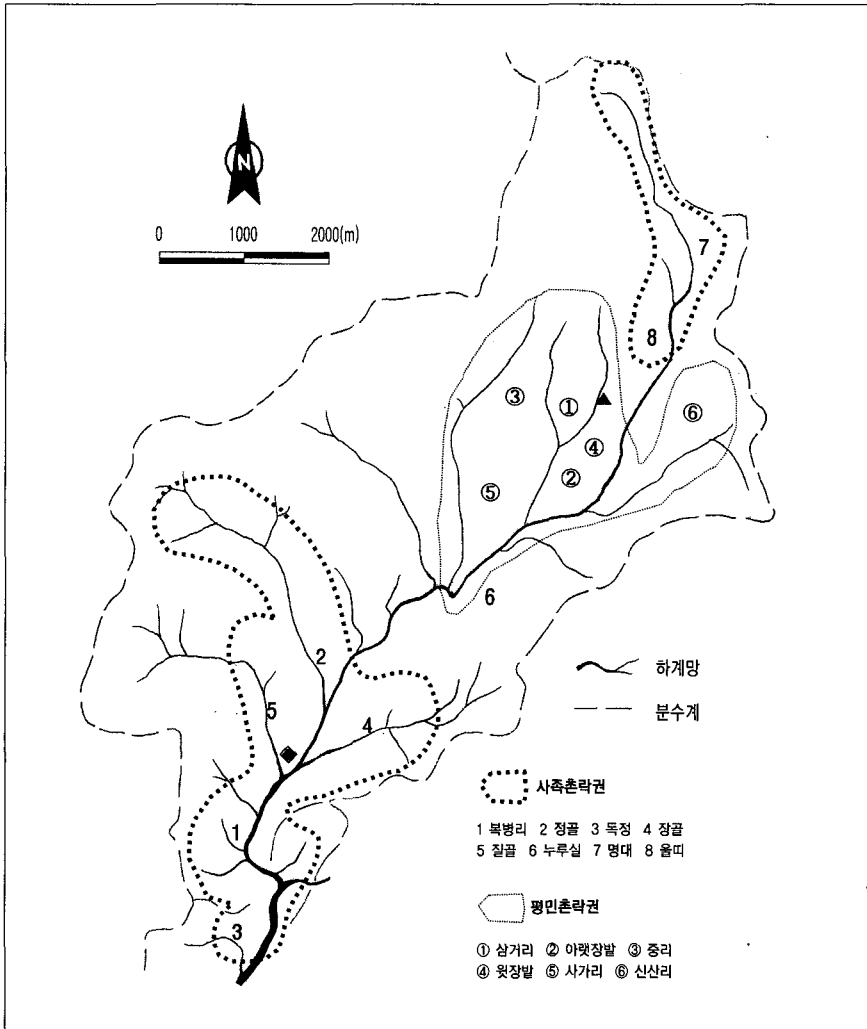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 공간의 중층성과 이중성: 보령 청라동의 사족촌락권과 평민촌락권

주: 보령 오서산 청라동의 사회적 공간의 중층성과 이중성.

- ① 사회적 공간의 중층성: 청라동에는 중층으로 존재하는 이중의 사회적 공간이 있다. 개별 종족촌락은 혈연·지연 관계에 기초한 공동체로서 하층위의 사회적 공간을 이루고, 이 상층위에는 종족촌락간 연맹에 의해 창출된 보다 큰 스케일의 사회적 공간, 즉 촌락권이 존재한다.
- ② 사회적 공간의 이중성: 청라동에는 두 개의 촌락권이 존재한다. 하나는 14세기말 이래 청라동의 주요 계거지를 점유하면서 비교적 높은 정치·사회적 지위를 유지해 온 <사족촌락권>이고, 다른 하나는 구릉지를 점유하면서 18세기 이후 비로소 定住化가 시작된 <평민촌락권>이다. 두 촌락권에는 각 촌락권의 성격과 중심 장소를 상징하는 경관이 확인되는데 <사족촌락권>의 화암서원(그림의 ◆)과 <평민촌락권>의 堂山(그림에서 ▲)이 바로 그것이다(전중환, 2004).

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된다. 다음으로, 촌락권의 내부구성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촌락권의 내부구성은 도로나 방위 같은 선형의 통로들, 거주, 생산 등을 위한 각종 면상의 공간들, 사회집단에

의해 의미 부여된 각종의 장소, 상징성을 내포한 경관들 등 다양한 물리적, 상징적, 관념적 차원의 장소와 경관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전중환, 2004, 37-38). 촌락권은 촌락민이 주체가 되는 자연환경과의 관계

는 물론이고, 인접 촌락과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고 공간적으로 중층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리하여, 하나의 촌락에는 다양한 관계들과 관련되는, 서로 다른 스케일의 복수 영역들이 퇴적됨으로써 단일한 경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중층적 촌락권이 만들어지기에 이른다. 이 때 촌락내의 제 장소와 상징경관은 다양한 시간대의, 다양한 관계들을 내포한 담지체로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촌락권을 충전하는 다양한 '상징경관'은 그 경관을 생산해 낸 형성 주체의 정체성(identity), 장소감(sense of place), 이데올로기(ideology)를 내포한다. 형태적이고 가치적이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념 정의되어 온 문화경관이나 인문경관 개념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경관 형성의 주체인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그 장소에 대한 사회적 애증으로서의 장소감, 그리고 가치관과 공간 행태의 배경으로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경관 속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보면, 상징경관은 문화경관이나 인문경관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어떤 사회 집단이 상징경관을 창출했다는 것은 장소의 생산과 소비, 영역성의 확장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그림 5).

정체성이나 장소감,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경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최근 들어 소위 신인문지리학이나 신문화지리학 분야에서 경험적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 연구 대상도 가시적 경관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경관, 즉 지명과 언어 연구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촌락사회지리학 분야에서 상징경관에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는 상징 경관이 촌락 사회집단의 공간적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공간적 전략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확대하며, 보다 넓은 공간을 영역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상징경관을 창출함을 의미한다.

촌락 경관은 일련의 경관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트(set)로서 외관상으로 파악 가능한 단위(physiognomic unit)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정치적 관리의 단위(unit of political management)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화적 단위(social and cultural unit)로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Claval, 2005, 13). 촌락을 도시와 대비되는 특정 공간이나 1차 산업과 같은 특정 기능과 동일시했던 시각은 이제 낡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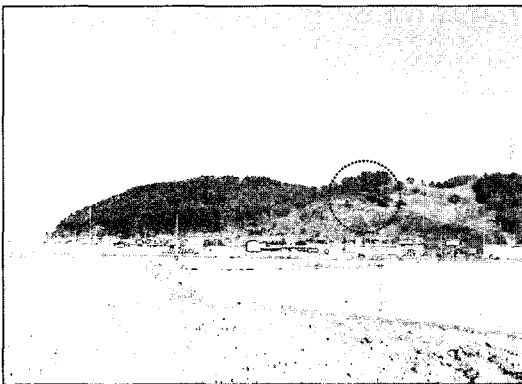


그림 5. 포구에서 농촌으로의 '碧海桑田': 서산시 성연면 창말의 경관 변화와 화석 경관

주: 촌락의 사회-공간 관계를 읽기 위한 텍스트: '상징경관'

창말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조운을 위한 창고가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다. 일제시기에 들어 창말은 태안반도와 인천 사이를 오가던 정기 여객선의 포구이자 어촌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대호방조제 축조 이후 마을 앞을 차지하던 과거의 碧海는 桑田[농경지]으로 변모하였고 촌락의 성격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탈바꿈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촌락 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상징적, 관념적 차원의 경관 요소들을 코드로 삼아 촌락경관이라는 텍스트를 써 왔다. 가령, 과거 포구의 물류 창고는 농업 창고로 기능이 바뀌었고 주점 거리와 변화가는 농경지가 되었으며 마을 뒷산의 '당집' (좌측 사진에서 원으로 표시된 곳/우측 사진)은 포구와 어촌 시절의 창말 주민의 집단적 정체성과 촌락권을 읽을 수 있는 상징경관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집단 정체성은 물론이고 집단 내 젠더(gender), 성별 등에 따라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전이적인 의미로 촌락 현상을 인식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Cloke, 1994). 이 때 촌락의 제 경관과 장소는 촌락성의 표상인 것이며 촌락민의 집단적 정체성, 사회·공간적 연망, 그리고 촌락권의 성격과 변화를 탐구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 4. 맺음말

촌락에는 지역민들이 느끼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및 그 변화에 적응하는 생존 전략들이 반영되어 있다. 생존 전략과 삶의 의미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민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점차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정착하게 된다. 삶의 방식들이 다양한 경관으로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촌락민들의 생생한 일상생활의 역사와 삶의 정치에 대한 고찰을 생략한 채 그 형태와 패턴만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찍이 촌락이라는 연구 대상은 지리학에서는 기초 지역으로서, 인류학과 사회학에서는 기초 사회로서, 그리고 역사학에서는 역사 인식과 흐름을 주도하는 민중의 근거지로서 매우 오래 전부터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촌락 연구는 이미 '마을 연구'라는 이름으로 보다 보편화되어 있다. 이 주제를 오랫동안 선점해왔던 촌락지리학의 연구 성과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고, 이 대신 사회사학, 역사인류학, 지방사학 분야에서 '마을 연구'는 문화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에 편승하며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개척되며 부활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지성 세계의 동향에 지리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리학적 개념들과 역사지리적 시각에서 복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 관점의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조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세기 전반 독일의 사회지리학은 촌락 지역 및 촌락의 경관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Vidal의 '생활양식', Bobek의 '생활형태집단', 그리고 '존재기분기능' 개념을 초석으로 삼아 발달하였다. 영어권에서는 1980년대 이래 촌락사회지리학이 급

부상하면서 정치·경제학적 시각과 문화 연구의 관점으로 무장하였다.

그리하여 유럽과 영어권에서 공히 사회집단이 갖는 정치적, 문화적 단위성의 표현물, 사회적 차별성의 표상, 환경적 특수성의 표현으로서 촌락경관을 읽을 수 있다는 사고가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본 고에서는 한국 촌락의 장소적, 경관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상응하는 주요 개념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지리적 사회집단으로서의 종족집단', '사회집단의 지역화과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촌락권'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안하고 전망할 수 있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문화경관이 삶의 질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전통 문화의 산실로서 촌락경관은 일상적 삶, 농업, 관광 사업의 중심에 있고 각 지역의 정체성으로부터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촌락경관의 이해와 분석을 위한 새로운 초학문적 전략들이 탐색되고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러한 조류에서 지리학이 중요한 갈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촌락경관이 물리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실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註

- 1) 일본의 경우, 이에의 계승이란 家業이나 家産이 유지·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계 혈통 여하를 떠나서 후계자가 선택된다. 혈통상의 장남은 제일 후보자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의 변창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에는 종업원의 신분에 있을 지라도 딸과 결혼시켜 이에를 계승할 수 있다(小林和美, 2005, 1).
- 2) 일본에서는 무라[村]를 단위로 한 이에[家]의 연합 집단을 도조쿠[同族]라 한다. 무라와 도조쿠의 관계는 거의 일대일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같은 혈족이라 할지라도 무라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도조쿠라 간주하지 않는다(小林和美, 2005, 5). 도조쿠는 잇케[一家], 잇케시[一家衆], 잇토[一統]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애가 성장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정치·경제적으로 종족관계에 있는 分家가 만들어지는데, 도조쿠란 이러한 분가-분가의 연합

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이예의 성원임을 표시해주는 장치가 우지[氏]인데, 어떤 이예가 망하여 다른 이예에게 종속되는 운명에 처해질 경우 우지[氏] 또한 변경되기 마련이다.

- 3) 지리적 변수나 기능은 지표 공간을 다양한 종류의 '지역'으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소위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은 그러한 구분 행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 4) 1806-1882년까지 생존했던 프랑스의 사회학자로서 당대의 프랑스 지리학자 Vidal de la Blache(1845-1918)와 함께 영국의 사회학 및 지리학의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James, 1981:187-197). 두 학자의 학문 영역은 서로 달랐지만 '인간(사회)과 공간을 상관적으로 인식'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 5) Giddens, A., 1985, "Time, Space and Regionalisation," 265-266., in Gregory, D. & Urry J.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Publishers, 265-295.
- 6) 국내의 연구 중에서 '지역화과정' 혹은 '지역화'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는 홍현욱·최기엽(1985), 정해정·최기엽(1990), 전종한(2002), 이문중(2004) 등의 논문에서 확인된다.

## 文 獻

- 金德鉉, 1983,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文化 景觀 -安東地方의 土族村落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10, 241-251.
- 金相昊, 1976, "生活空間의 基礎地域 研究 - 面 · 里 · 洞의 地域的 基盤 -, " 地理學研究, 1(2), 1-25.
- 金日基, 1988, *곰소灣의 漁業과 漁村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길용현 · 김영성, 1984, "사회복리의 지역격차 변동: 1970-1980," 地理學研究, 9, 305-324.
- 김기혁, 2002, "농업 · 촌락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인문 · 사회과학편 제3집), 대한민국학술원, 169-212.
- 김재한, 2002, "사회 · 인구 · 정치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인문 · 사회과학편 제3집), 대한민국학술원, 213-243.
- 南宮燧, 1983, "開拓村의 文化地理學的 研究 - 全北 沃溝郡 米面 山北里 干渴地 開拓촌을 中心으로-", 地理學的 課題와 接近方法[석천 이찬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492-522.
- 南宮燧, 1993, "萬頃江流域의 聚落類型의 生態인 特色," 전환기의 한국지리[남계 형기주교수 화갑기념논집], 657-698.
- 南宮燧, 1997, "萬頃江 流域의 開墾過程과 聚落形成發達에 관한 研究,"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7-87.
- 柳濟憲, 1979, "農村景觀의 形態的 研究 - 驪州?利川 地方을 中心으로 -, " 地理學論叢, 6, 96-115.
- 박영한 · 안영진(역), 1998, *사회지리학*, 법문사, 서울 (Maier, j. et al., 1977, *Sozialgeographie*, Georg Westermann Verlag, Braunschweig).
- 朴鍾敎, 1988, 韓國 寺下村의 構造와 變貌,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안영진(역), 2003, *사회공간론*, 한울, 서울(Werlin, B., 2000, *Sozialgeographie*, Verlag Paul Haupt).
- 楊普景, 1980, "半月面 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 起源과 發達過程을 中心으로 -, " 地理學論叢, 7, 29-52.
- 예경희, 1984, *한국도시의 비공식집단연구: 사회지리적 접근*, 대학사, 서울.
- 吳洪哲, 1969, "濟州島의 聚落立地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4, 41-54.
- 玉漢錫, 1986, "嶺西太白山地에 있어서 氏族의 移動과 村落의 形成에 關한 研究,"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34, 30-46.
- 원학희, 1978, "구한말 서울의 거주공간형태," 地理學叢, 6, 25-32.
- 李玕鏞, 1994, "氏族集團間 社會的 關係의 變化와 村落의 空間構造 - 忠南 靑陽郡 美洞 同族村의 事例研究 -, " 地理教育論集, 31, 27-62.
- 이광규, 1992, *가족과 친족*, 일조각, 서울.
- 李文鍾, 1984, "同族村의 人口移動과 村落의 變貌,"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19(2), 77-89.
- 李文鍾, 1988, 泰安半島의 村落形成에 關한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地理學論叢, 별호 6.
- 李文鍾, 1996, "村落地理學 50年(1945-1995)의 回顧와 展望," 대한지리학회지, 31(2), 213-254.
- 李文鍾, 1998, "村落,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구조적 이해와 촌락 조사를 위한 시론적 연구," 지역개발연구논총, 7, 1-16.
- 이문중, 2004, "禮山 古德의 驪州李氏 一門과 實學의 地域化," 문화역사지리, 16(2), 83-97.
- 李恩淑, 1982, "都市 再開發과 住民의 態度에 關한 研究 - 서울 母岳洞의 境遇 -, "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 17(1), 55-78.
- 李俊善, 1982, “林野開拓에 의한 村落形成過程 - 江陵市南部 金光坪 一帶의 事例研究 -,” 論文集[관동대 인문·사회과학편], 10, 469-484.
- 李俊善, 1993, “韓國 同族村의 時·空間的 展開,” 전환기의 한국지리(남계 형기주교수 화갑기념논집), 711-738.
- 이한방, 1987, “농촌지역 통혼권의 구조와 변화과정,” 地理學論叢, 14, 165-183.
- 張保雄, 1983, “全南地方 同族部落의 構造와 機能,”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27, 15-30.
- 田京淑, 1992, “光州市 幼兒教育機關의 適正 立地-分配에 관한 研究,”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27(3), 208-231.
- 全種漢, 1995, “村落의 空間的 擴大過程에 관한 研究,” 문화역사지리, 5, 53-63.
- 全種漢, 2002a, 宗族集團의 居住地 移動과 地域化過程,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전종한, 2002b, “宗族集團의 地域化過程에 관한 연구(I): 生態的 定着段階,” 史學研究, 67, 131-170.
- 전종한, 2002c, “역사지리학 연구의 古典的 傳統과 새로운 路程 -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학연문화사, 서울, 215-252.
- 전종한, 2004, “사족집단의 사회관계망과 촌락권 형성과정: 鳥棲山의 溪居地 靑蘿洞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2), 36-52.
- 鄭부매·崔基燁, 1994, “서울 근교 전통농촌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29(3), 340-359.
- 鄭惠汀·崔基燁, 1990, “동족촌의 지역화과정과 공간구성,” 지리학연구, 16, 17-44.
- 崔基燁, 1982, “景觀的 表現과 空間認識,” 地理學叢, 10, 210-221.
- 崔基燁, 1983, “場所의 理解와 象徴的 空間의 解釋,” 地理學論叢, 10, 151-163.
- 崔基燁, 1986, 韓國村落의 地域的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지리학연구보고, 14.
- 崔基燁, 1993, “景觀體驗과 場所의 社會化,” 전환기의 한국지리(남계 형기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교학사, 서울, 71-94.
- 최기엽, 1996, “「村落地理學 50年の 回顧와 展望」(이문종)에 대한 토론문,” 대한지리학회지, 31(2), 253-254.
- 崔永俊·孫宗均, 1990, “同族村의 文化地理的 研究 - 蔚州郡 上北面 池內里의 事例研究 -,” 문화역사지리, 2, 19-37.
- 최운식·배미애, 1987, “한국의 범죄공간,” 地理學論叢, 14, 321-329.
- 허우궁, 1991, “서울의 通勤과 居住地 選擇,” 地理學(대한지리학회지), 26(1), 46-61.
- 洪賢玉·崔基燁, 1985, “南陽洪氏 同族社會集團의 地域化過程,” 地理學研究, 10, 383-424.
- 今本曄, 2000, “村落內小社會集團의 成立と基礎地域의 社會的紐帶 - 滋賀縣神崎郡川竝を事例として -,” 人文地理, 52(2), 63-79.
- 小林和美(고바야시 카즈미), 2005, “일본의 ‘이에’(家)와 ‘무라’(村),” 충남대 마을공동체연구단 콜로키엄 자료집(2005. 4. 22), 1-9.
- 堤研二, 1992, “ドイツ社會地理學の一系譜 - 社會地理學論爭の周邊 -,” 人文地理, 44(2), 44-65.
- Chisolm, M., 1962, *Rural Settlement and Land Use*, Hutchinson, London.
- Chivallon, C., 2003, A vision of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in France, *Social & Cultural Geography*, 4(3), 401-409.
- Claval, P., 2005, Reading the rural landscap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0(1-2), 9-19.
- Cloke, P., et al., 1994, *Writing the Rural. Five Cultural Geographies*, Paul Chapman Publishing Ltd., London.
- Cloke, P. and Little, J., 1990, *The Rural State? Limits to Planning in Rur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Demeritt, D., 2002, What is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A typology and sympathetic critiqu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6), 767-790.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Polity Press, Cambridge.
- Giddens, A., 1985, Time, Space and Regionalisation, in Gregory, D. and Urry J.(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Publishers, 265-295.
- Halfacree, K., 1993, Locality and social representation: space, discourse and alternative definitions of

- the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9, 1-15.
- Holt-Jensen, A., 1981, *Geography: Its History and Concepts*, Harper & Low, London.
- Houston, J. M., 1953, *A Social Geography of Europe*, Gerald Duckworth, London.
- James, P.E. et al., 1981, *All Possible Worlds*, John Wiley & Sons, New York.,
- Jones, O., 1995, Lay discourses of the rural: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rural stud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1(1), 35-49.
- Little, J., 1999, Otherness, representation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rural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3), 437-442.
- Little, J., and Leyshon, M., 2003, Embodied rural geographies: developing research agenda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3), 257-272.
- Marsden, T., Whatmore, S. and Munton, R.J.C., 1987, Uneven development and the restructuring process in British agriculture: a preliminary explor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3, 297-308.
- Murdoch, J. and Pratt. A., 1993, Rural Studies: modernism, postmodernism and the 'post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9, 411-427.
- Newby, H., 1986, Locality and rurality: the restructuring of rural social relations, *Regional Studies*, 20, 209-216.
- O' Rourke, E., 2005, Socio-natural interaction and landscape dynamics in the Burren, Ireland,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0(1-2), 69-83.
- Palang, H., et al., 2005, Rural landscape: past processed and future strategi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0(1-2), 3-8.
- Phillips, M., 1998, The Restructuring of Social Imaginations in Rural Geography, *Journal of Rural Studies*, 14(2), 126-130.
- Philo, C., 1991, Introduction, acknowledgements and brief thoughts on older words and older worlds, Philo, C.(ed.), *New Words and New Worlds: Reconceptual-is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Study Group, Lempeter, UK, 1-13.
- Philo, C., 1993, Postmodern rural geography? A reply to Murdoch and Pratt, *Journal of Rural Studies*, 9(4), 429-436.
- Philo, C., 1994, History, geography and the "Still greater mystery" of historical geography, in Gregory, D, Martin, R. and Smith, G.(eds) *Human Geography*, Macmillan, London, 252-281.
- Pratt, A., 1996,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rural geographies, *Ecumene*, 3.
- Urry, J., 1984, Capitalist restructuring, recomposition and the regions, in Bradley, T. and Lowe, P.(eds), *Locality and Rurality: Economy and Society in Rural Region* GeoBooks, Norwich, 45-64.
- Wright, S., 1992, Image and anlysis: new directions in cummunity studies, in Short, B.(ed), *The Rural Commu-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95-217.
- 교신 : 전종한,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이메일: philotopoer@yahoo .co.kr, 전화: 042-821-6947 팩스: 042-822-718
- Correspondence: Jong-Han Jeon, Research Center for Settlement Commun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ajeon 305-764, Korea(philotopoer@yahoo.co.kr)

최초투고일 05. 4. 11

최종접수일 05. 6. 10